중국 농업전망 보고(2020~2029년)(요약)[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중국 농업·농촌부는 2020년 4월 20일 중국 농업전망 대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농업을 전망하는 「중국 농업전망 보고(2020~2029)」를 발표하였다. 이 대회는 2014년부터 개최되었다. 올해에는 2019년 총괄과 2029년까지의 농축수산물 생산량과 소비량 전망이 보고되었다.

여기에서는 돼지고기, 쇠고기, 가금육, 유제품 및 사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생산, 가격, 수출입 및 소비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각각 불확실하여 면밀하게 고려되지는 못하였다.

1. 돼지고기

1.1. 2019년 동향

중국의 번식 암퇘지 마릿수는 ASF(Africa Swine Fever,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2019년 들어 크게 감소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하 마릿수도 2019년 제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4% 감소한 9,632만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sykim0722@krei.re.kr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의 내용 중에서 발췌하여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마리였지만, 제4분기에는 1억 3,441만 마리로 증가세로 돌아섰다(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 그 결과, 2019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3% 줄어든 4,255만 톤이었다(표 1).

〈표 1〉 돼지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단위: 만 톤, kg/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측)	2029년(예측)
생산량	5,425.5	5,451.8	5,403.7	4,255.0	3,934.0	5,972.0
수입량	162.0	121.7	119.3	19.4	280.0	123.0
소비량	5,446.0	–	–	4,456.0	4,206.0	6,077.0
1인당 소비량	(40.6)	–	39.6	(38.1)	29.9	42.3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3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7月号에서 재인용

돼지고기(부스러기 고기 제외) 수입량은 전년 대비 67.2% 늘어난 199만 4,000톤으로, 주요 수입 대상국은 수입량 순으로 스페인, 독일,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이다. 수출량은 동 36.4% 감소한 3만 톤이었다.

1인당 소비량은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에 있으며, 2018년 39.6kg이었다.

1.2. 2020년 동향 예측

2020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7.5% 줄어든 3,934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COVID-19의 발생에 의해 연도 초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그 영향이 계속되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2020년 말에는 통상적 수준 가까이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수급의 압박을 받아 돼지고기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수입량은 동 32.7% 늘어난 280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급량 감소로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여, 동 5.9% 감소한 29.9kg이다.

1.3. 2029년까지의 동향 예측

2020년 말 생산 능력 회복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2029년 생산량은 5,972

만 톤으로, 현재보다 1.4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국내 공급이 회복되면서 자급률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수입량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지나, 2029년 수입량은 123만 톤으로 예측하였다. 또 수출량은 서서히 회복하여, 2029년에는 18만 톤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은 단기적으로는 생산 능력이 회복되어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저하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는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9년의 1인당 소비량은 42.3kg으로 전망하였다.

2. 쇠고기

2.1. 2019년 동향

2019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3.6% 늘어난 667만 톤이었다(표 2). 허베이 성, 산시 성 등 17개 성·자치구의 빈곤 지역 629곳에서 빈곤 완화를 위해 식용곡물 생산에서 사료 생산으로 전환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육우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당년도 수입량은 전년대비 59.6% 늘어난 165만 9,700톤으로, 주요 수입 대상국은 수입량 순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우루과이 뉴질랜드(이하 NZ)였다.

〈표 2〉 쇠고기 수급동향과 전망

단위: 만 톤, kg/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측)	2029년(예측)
생산량	616.9	634.6	644.1	667.0	678.0	789.0
수입량	58.0	69.6	103.9	166.0	167.0	205.0
소비량	674.0	705.0	748.0	833.0	845.0	994.0
1인당 소비량	4.9	5.1	5.4	6.0	–	–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3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에서 재인용

또 국산 쇠고기 연간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12.4% 상승하여 크게 상승한 반면,

최근 쇠고기 기호 향상과 보급 및 침투를 배경으로, 2019년 소비량도 전년대비 11.4% 늘어난 833만 톤, 1인당 소비량은 6kg이었다.

2.2. 2020년 동향 예측

2020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678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COVID-19로 2월 중순까지 약 60%의 식육처리장이 조업을 정지(일부를 포함)하였지만, 3월 말 이후 업무 재개가 진행되고 있다.

또 국내 공급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국산품보다 수입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일대일로(一帶一路)[2] 정책에 따른 무역 확대가 기대되어, 수입량은 동 0.6% 늘어난 167만 톤이 될 전망이다.

소비량은 COVID-19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외식 감소에서 회복하였고, 인구 증가와 돼지고기 및 가금육 대체 소비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여 동 1.4% 늘어난 845만 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 2029년까지의 동향 예측

2029년 생산량은 품종 개량이나 생산 기술의 향상 등으로 789만 톤으로, 현재 1.2배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입량은 증가하여 2029년 205만 톤이 될 전망이다. 한편 수출량은 감소가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2029년 쇠고기 소비량은 994만 톤으로 예상된다.

또 생산이 소비를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며, 환경 규제와 번식 암소 생산 발전 둔화 등의 상황에 의해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2) 중국은 2013년부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고대 실크 로드를 떠올리는 육로와 해로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을 잇는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농업에 관해서도 일대일로 참여 65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무역협정 구축과 수출입 절차 간소화에 의한 원활한 무역의 촉진, 농업기술을 포함한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출처: 허 덕 외, '미국 농축산업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호(9권 4호). 중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뜻의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주창하고 있다.(출처: 중국학 위키백과 sinowiki, https://chinesewiki.uos.ac.kr/wiki/index.php/%EC%8B%9C%EC%A7%84%ED%95%91)

3. 가금육

3.1. 2019년 동향

2019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12.3% 늘어난 2,239만 톤이었다(표 3). 또 수입량은 전년 대비 58% 늘어난 79만 7,000톤으로 거의 전량이 닭고기였다. 이 중 브라질(67.6%)과 태국(8.9%)에서 80%에 조금 못 미치는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러시아, 폴란드, 벨라루스, 프랑스에서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수입 상대국의 다양화가 확대하고 있다. 한편 수출량은 전년 대비 1.1% 줄어든 51만 2,400톤이었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 닭고기 소비량 증가, 생산비용 상승으로 상반기 닭고기 가격은 상승하였다.

1인당 소비량은 돼지고기를 대신하여 소비되는 추세에 비추어, 도시, 농촌부 모두 소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5% 늘어난 16.2kg이었다.

〈표 3〉 가금육 수급 동향과 전망

단위: 만 톤, kg/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측)	2029년(예측)
생산량	1,888.2	1,981.7	1,994.0	2,239.0	2,401.0	2,585.0
수입량	–	약 45만 톤	약 50만 톤	79.7	86.0	59.0
수출량	–	약 50만 톤	약 50만 톤	51.2	52.0	55.0
소비량	–	–	–	2,267.5	2,435.0	2,589.0
1인당 소비량	–	–	–	16.2	–	18.0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3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에서 재인용

3.2. 2020년 동향 예측

2020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2,401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반기는 완만하게, 그 후 하반기에는 급속히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수입 대상국 확대에 힘입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7.5% 늘어난 86만 톤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국내 수급이 압박을 받고 있어, 수출은 억제되어 저년 대비 2% 늘어난 52만 톤이 될 전망이다.

닭고기 가격은 돼지고기의 대체 소비 확대가 전망되어, 높은 가격을 형성할 전

망이다.

소비량도 전년 대비 7.4% 늘어난 2,435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도 초에는 COVID-19에 의해 생닭 시장이 폐쇄되고, 외식산업이 멈추는 바람에 소비량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3. 2029년까지의 동향 예측

2029년 생산량은 2,585만 톤으로 현재에 비해 1.2배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1년까지는 급속히 증가하고, 그 후 증가는 연 1% 정도로 완만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수입량은 생산량 증가를 배경으로 2029년의 약 60만 톤을 조금 넘는 수준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수출량은 약 60만 톤 미만까지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생닭 거래는 감소하지만, 냉동이나 가공품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2029년 소비량은 2,589만 톤, 1인당 소비량은 18kg이 될 전망이다.

4. 유제품

4.1. 2019년 동향

원유 생산량은 2017년 이후 계속 증산이 되었으며, 2019년에는 3,305만 톤이었다. 이 중 소에 의한 생산량은 3,201만 톤이다(표 4).

〈표 4〉 유제품 수급 동향과 전망

단위: 만 톤, kg/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측)	2029년(예측)
생산량	3,173.9	3,148.6	3,176.8	3,305.0	3,390.0	4,300.0
그 중 소에 의한 생산량	3,064.0	3,038.6	3,074.6	3,201.0	–	–
수입량	1,279.0	1,461.1	1,559.0	1,660.0	1,715.0	2,305.0
소비량	3,966.0	4,109.0	4,264.0	4,949.0	5,090.0	6,596.0
1인당 소비량	28.7	29.6	30.6	35.4	–	–

주 1: '유제품'에는 우유 외에 양유, 야크유 등을 원료로 생산된 제품 포함.

2: ‘수입량’ 및 ‘소비량’은 원유로 환산한 수치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3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7月号에서 재인용

이전부터 국내 공급부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수입 물량은 전년대비 12.8% 늘어난 297만 3,400톤(제품 기준)이며, 원유 환산 1,660만 톤이었다.

또 당해 연도 소비량은 전년보다 4.9% 늘어난 4,949만 톤(원유 베이스, 이하 같다), 1인당으로 하면 35.4kg이었다. 중국에서 원유는 주로 상온 우유나 요구르트로 소비되고 있지만, 최근 콜드 체인의 보급에 따라 냉장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분유류 소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치즈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정착하고 있다.

4.2. 2020년 동향 예측

2020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2.6% 늘어난 3,390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COVID-19로 사료 반입, 원유 출하 제한, 착유우 조기 건유나 도태, 이들을 배경으로 한 운전자금 회수 및 부채 증가 등 단기적인 영향은 있었지만[3], 연간 생산량은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수입량은 동 3.3% 늘어난 1,715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COVID-19에 의한 국제적인 물류가 제한된 점과 국내 유제품 유통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어 소비가 부진하면서 국내 분유류 재고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유제품 수입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미·중 경제 무역 협정의 1차 합의와 각 경제 연계 협정으로 NZ와 호주로부터의 수입 관세가 인하되어, 국산품보다 수입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연간 수입량은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유제품 유통도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웰빙에 대한 의식은 높아지고 있어 소비량은 5,090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4.3. 2029년까지의 동향 예측

원유 생산량은 완만하게 증가하여 2029년 4,300만 톤으로 현재 1.3배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입량도 완만하게 증가하여 2029년 2,305만 톤으로 보고 있다. 전술한 경제제휴 협정에 따른 수입 관세 인하와 함께 EU와의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를 서로 인정하는 양자 협정 타결[4], 일대일로 정책으로 수입 대상국은 다양화되고 모든 제

3)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허 덕 외,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8월호(9권 4호) [중국]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4) EU와의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를 서로 인정하는 양자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EU

품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지만, 페이스는 감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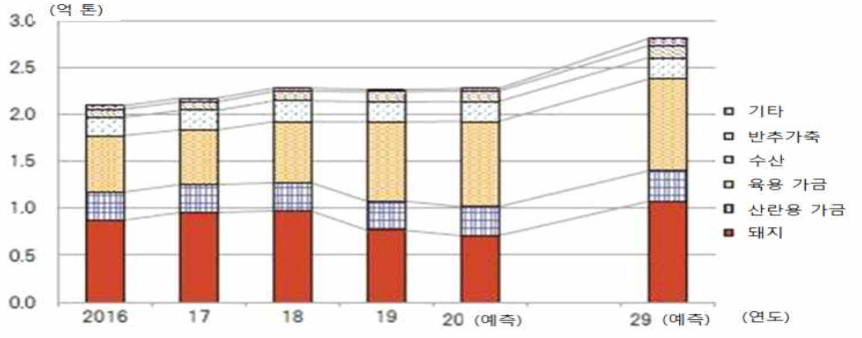
소비량은 향후, 농촌부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6,596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유업 관계 단체가 하루 300그램의 유제품을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5], 이 정책에 따른 소비량 증가는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5. 사료

5.1. 2019년 동향

총생산량은 전년 대비 0.4% 늘어난 2억 2,885억 톤, 총 소비량은 2억 2,636억 톤이었다(그림 1). 2018년까지 최대 쉐어를 차지하던 돼지용 사료 생산량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2% 감소한 7,663만 톤이 된 반면, 돼지고기를 대신하여 증산된 식용 가금 사료 생산량은 동 30% 늘어난 8,465만 톤이 되면서 역전되었다.

〈그림 1〉 축종별 사료 소비량 동향과 전망



주 : 2016-2018년 수치는 '생산량'임.
자료; 중국사료공업협회, 중국농업농촌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7月号에서 재인용

와 중국 100개씩 지리적 표시(GI)를 상호 보호하기로 타협',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해외 정보 2019년 11월 13일 게재(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539.html)를 참조할 것.

5) 중국 유업협회, 중국유제품공업협회, 전국보건산업체관리협회, 중국영양학회가 합동으로 2020년 2월 26일 '중국 국민의 우유·유제품 소비 지도'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1인당 매일 300그램의 음용유 또는 요구르트나 이에 해당하는 유제품을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중국 국민의 1일 우유·유제품 섭취량은 97그램이다.

또한 사료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옥수수, 콩, 유채박은 증가하고, 보리, 고량, 채종 등은 감소하였다(표 5).

〈표 5〉 사료원료 수입 동향

단위: 만 톤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율(%)
에너지원	옥수수	352.2	479.3	36.0
	보리	781.0	627.9	19.6
	고량	364.0	83.0	77.2
	DDGS	15.5	14.1	9.0
단백질원	대두	8,806.2	8,859.0	0.6
	대두박	476.8	273.7	42.6
	채종	2.3	1.0	58.5
	채종박	130.0	158.1	21.6
	어분	146.1	142.0	2.8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3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에서 재인용

5.2. 2020년 동향 예측

2020년 총 소비량은 전년보다 0.4% 늘어난 2억 2,722억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 체량은 적게 증가하였지만, 축종 간 격차가 큰 돼지용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7,074만 톤, 식용 가금은 저년 대비 7.2% 늘어난 9,070만 톤으로 내다보았다. 또 산란용 가금, 반추 가축은 조금 증가하지만, 수산용은 약간 감소할 전망이다.

또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0.3% 늘어난 2억 2,086만 톤, 농축사료는 저년 대비 0.3% 줄어든 1,238만 톤, 프리믹스 및 사료 첨가물은 저년 대비 2.8% 늘어난 558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6].

6) 중국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것은 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최종 제품인 '배합사료'이다. 두 번째는 단백질, 미네랄 등으로 구성된 '농축사료'이며, '농축 사료' 1에 대해 옥수수 3의 비율로 배합함으로써 '배합사료'로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2종 이상의 사료 첨가제를 혼합한 '프리믹스'이며 '농축사료'와 마찬가지로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사료의 형태의 구체적으로 생산량 추이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중국의 사료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19年 12月号 p.100(https://www.alic.go.jp/content/001171538.pdf)을 참조하길 바란다.

5.3. 2029년까지의 동향 예측

사료 소비량은 완만하게 증가하여 2029년에는 2억 8,053만 톤으로, 현재에 비해 1.2배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중 돼지용은 약 1.4배인 1억 738만 톤, 식용 가금은 약 1.2배인 9,765만 톤, 반추 가축은 약 1.2배인 1,272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 배합사료와 프리믹스, 사료 첨가물 생산량이 조금 증가하며, 농축사료는 감소하는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문헌

허 덕 외, '미국 농축산업 전망',「해외곡물시장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호(9권 4호)

허 덕 외,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해외곡물시장동향」2020년 8월호(9권 4호)

중국농업농촌부,「농업전망보고 2020-203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EU와 중국 100개씩 지리적 표시(GI)를 상호 보호하기로 타협',「畜産の情報」海外情報 해외 정보 2019년 11월 13일 게재(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539.html)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중국의 사료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19年 12月号(https://www.alic.go.jp/content/001171538.pdf)

중국학 위키백과 sinowiki, https://chinesewiki.uos.ac.kr/wiki/index.php/%EC%8B%9C%EC%A7%84%ED%95%91)